

최원준·김호령 3안타 ‘펄펄’ …폭죽타선에 KIA 2연승



올 시즌 세 번째 ‘단군 매치’ 첫판의 승자는 호랑이었다.

KIA는 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리그 KBO리그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11-3으로 이겼다. 장단 13안타를 터트린 타선을 앞세워 감독대행 체제의 여수선한 두산을 무너뜨렸다. 28승 28패 1무(승률 0.500)로 순위는 7위를 유지했다.

선발 양현종은 5이닝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1자책)으로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시즌 4승(4패)을 수확했다. 성영탁-전상현-최지민(이상 1이닝 무실점)-홍원빈(1이닝 1실점)으로 이어지는 불펜진도 안정적인 투구로 두산 타선을 틀어막았다. 최원준이 3안타 2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윤도현, 위즈덤, 오선우로 이어지는 중심타선도 멀티히트를 기록하는 등 타선 전체가 응집력을 발휘했다.

KIA는 부상에서 복귀한 두산 선발 박빈을 공략하며 초반부터 기선 제압에 나섰다. 테이블세터 박찬호와 최원준이 연속 볼넷으로 출루한 뒤 윤도현이 다시 볼넷을 얻어 무사 만루를 만들었다. 이어 오선우가 2타점 적시타로 선취점을 냈고, 김석환의 볼넷과 황대인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3-0으로 리드를 잡았다.

장단 13안타 …11-3 두산 제압
선발 양현종 5이닝 1자책 ‘4승’
홍원빈, 입단 7년만에 1군 데뷔



KIA 홍원빈

KIA 제공

3-1로 앞선 4회 2사 후 김호령의 2루타로 다시 흐름을 가져온 KIA는 박찬호의 볼넷과 최원준의 1타점 적시타, 윤도현과 위즈덤의 연속 안타가 터지며 점수 차를 6-1까지 벌렸다.

5회 말 수비에서 실책으로 1점을 내줬지만, 주도권은 이미 KIA가 잡은 상태였다.

KIA는 8회 초 다시 한번 대량 득점을 올리며 승부에 쐈기를 박았다. 황대인의 볼넷과 김태균

의 희생번트로 1사 2루를 만든 뒤, 김호령이 우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1타점을 추가했다. 이후 박찬호, 최원준, 윤도현이 연속 안타로 타점을 더했고 상대 실책으로 추가 득점하면서 5득점 박이닝을 만들었다.

9회에는 홍원빈이 마운드에 올라 프로 데뷔전을 치렀다.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인 홍원빈은 입단 7년 만에 1군 마운드에 올라 초구 152km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았다. 1사 1,3루를 허용하며 희생플라이로 실점했지만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탈삼진으로 잡아내며 1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KBO리그는 역대 가장 빠른 294경기 만에 5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이날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합계 10만 356명이 입장, 시즌 누적 관중 509만 9,720명으로 500만 관중을 넘어섰다. 이로써 올 시즌 294경기 만에 500만명을 돌파, 역대 최소경기 신기록이 작성됐다. 이 부문 종전 기록은 2012시즌 332경기이며 13년 만에 종전 기록을 38경기 앞당겼다. 또한 최종 관중 1,088만 7,705명으로 사상 최초의 1,000만 관중을 달성했던 지난해 500만 관중 돌파 시점(345경기)보다도 51경기를 덜 치르고 기록을 세웠다.

조혜원 기자



KIA 김호령이 3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원정경기 8회초 적시2루타를 쳐낸 뒤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광주·전남 직장운동경기부, 문체부 운영지원 공모 선정

국비 15억4천만원 확보

광주·전남지역 직장운동경기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5억4,000여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광주는 운영지원 부문에서 6개 단체 19개 팀이 포함됐고 전남은 창단 및 운영지원 분야에서 대규모 예산을 확보했다.

3일 광주·전남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직장운동경기부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는 운영지원 분야 총 6개 단체 19개 팀이 선정돼 약 5억 4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확보했다. △남구청(레슬링·양궁) 8,000만 원, △북구청(검도) 5,000만 원 △서구청(펜싱) 5,000

만 원 △광주시청(육상·양궁·근대5종·역도) 2억 757만 원 △광주시체육회 10개 팀 선정 1억 754만 원 △광주도시공사(핸드볼)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는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창단지원 2개교 2종목, 운영지원 6개 단체 18개 팀 등 총 8개 단체 20개 팀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총 9억9,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2억9,000만 원 지원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창단지원 분야에는 △목포대학교 육상팀(2억5,500만 원)과 △동신대학교 태권도팀(1억3,997만 원)이 선정돼 총 3억9,400만 원을 확보했다.

운영지원 분야에는 △전남도청(펜싱·소프트테니스·근대5종·카누·우슈·스쿼시) 9,725만 원 △목포시(육상·하키) 1억 원 △여수시(요트·유도·육상) 1억3,000만 원 △순천시(소프트테니스·양궁·유도) 1억1,500만 원 △광양시(육상·볼링) 7,000만 원 △한국전력(럭비·육상) 8,500만 원 등 6개 단체 18개 팀이 고르게 선정되며 전남 체육의 저변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 체육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이번 선정 결과가 전남 체육의 저변 확대와 선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송원대 김동휘, 한화이글스배 고교vs대학 올스타전 MVP

4타수 1안타 2타점 활약

송원대학교 김동휘(4년)가 제3회 한화이글스배 고교vs대학 올스타전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김동휘는 지난 2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대학팀 4번타자 우익수로 출전,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는 송동원 원광대 감독이 이끄는 대학 올스타팀과 석수철 군산상일고 감독이 이끄는 고교 올스타팀 간 단판 승부로 진행됐으며 대학 올스타가 3-1로 이겼다.

대학 올스타는 5회 1사 만루에서 안재연(고려대)의 스윙트 번트, 김동휘의 3루타로 3점을 뽑아냈다. 고교 올스타는 8회 안지원(부산고)의 3루타와 김건휘(충암고)의 내야 땅볼로 1점을 만회했다.

김동휘는 송정동초, 중장BC, 진흥고 출신으로 183cm 85kg의 체격을 갖췄으며 우투좌타다.



송원대학교 김동휘가 지난 2일 대전 한화생명 불파크에서 열린 제3회 한화이글스배 고교vs대학 올스타전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받았다.
한화이글스 인스타그램 캡처

고교시절인 2017년 고교 주말리그 전반기 전라권 타점상, 2022년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도루상을 받았다.

한편, 올해로 3번째 열린 고교vs대학 올스타

전에서 대학올스타가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올스타전에서는 6-6 무승부가 나왔고 지난해는 고교 올스타가 12-2 승리를 거뒀다.

조혜원 기자

박민지, KLPGA 사상 첫 단일 대회 5회 연속 우승 도전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6일 개막

박민지가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6일부터 사흘간 강원도 원주 성문안(파72·

6,494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박민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올해 대회에서도 박민지가 우승하면 KLPGA 투어 사상 최초로 단일 대회 5연패를 달성한다.

박민지는 대회를 앞두고 KLPGA 투어를 통해 “단일 대회 5연패 도전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영광스러운 기회”라며 “기록은 깨라고 있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즐겁게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독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결전지 이라크 입성…무더위 최대 난관

6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려는 홍명보호가 결전지 이라크에 도착했다.

3일(이하 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밤 11시께 전세기편으로 이라크 바스라 공항에 도착했다.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코치진·스태프가 인천공항을 떠난 지 약 11시간 만이었다.

한국은 6일 오전 3시 15분 이라크 바스라의 바스라 국제경기장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9차전을 치른다.

이어 한국으로 돌아와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펼친다.

현재 우리나라는 승점 16(4승 4무)를 쌓아 요르단(승점 13), 이라크(승점 12)를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번 이라크 원정에서 비기기만 골바로 11회 연속이자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다.

협회에 따르면 우리 선수단이 바스라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시간 2일 오후 5시쯤이었었고, 기온은 무려 44도였다.

선수단은 주이라크 한국대사관의 환영 현수막 앞에서 간단한 기념 촬영을 하고 곧바로 숙소로 발길을 향했다.

선수단은 방탄 버스 2대에 나눠타고 경호차량 및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로 이동했다. 도로 통제도 이뤄졌다.

이번 원정에 참여하는 26명의 선수 중 중동 국가에서 뛰는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샤르자), 박용우(알아인)는 먼저 이라크에 도착해 숙소에서 동료들을 맞이했다.

1일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은 현지시간 3일 오전 바스라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강인이 합류하면 대표팀은 4일 오전 3시(현지시간 3일 밤 시) 완전체로 이라크에서의 첫 훈련을 할 예정이다.

현지 기온이 낮 시간대는 최고 45도까지 치솟고, 저녁 시간대에도 35도에 머무는 통에 훈련 시간은 가능한 한 늦은 시간대로 조정하려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연합뉴스